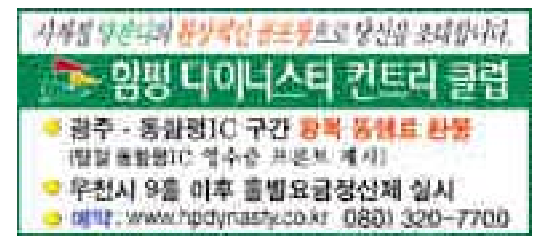

제28회 장애인체육대회 첫날인 6일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 100m T53경기에서 선수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김하은 첫 금…대회 2연패

〈시각장애 1급〉

여자 육상 100m T12 우승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막올라

김하은이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100m T12에서 금빛 질주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와 전남이 대회 첫날 산뜻한 출발을 했다.

김하은(여·시각장애 1급·광주세광학교 3년)은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막일인 6일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여자 100m T12에서 13초 14의 기록으로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개최지 광주에 힘을 실었다.

이어 류난희는 여자포환 F12에서 5m 10㎝를 기록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역도에서도 은메달이 쏟아졌다.

윤용은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역도 남자 48㎏급 이하에서 벤치프레스 종합오픈· 파워리프팅 오픈·웨이트 오픈에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또 김흥노도 남자 52㎏이하에서 역시 벤치프레스 오픈·파워리프트오픈·웨이트오픈에서 역시 은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볼링에서는 김용·박선주가 TPB2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최하위 탈출을 노리는 전남은 금메달은 없었지만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이규현(은광학교)은 육상 남자 100m T13에서 은메달 질주를 펼쳤으며 김성희는 여자 100mT13에서 김영만·이병육은 볼링 남자2인조 TPB1에서 역시 동메달을 따냈다.

2008베이징장애인올림픽 사격에서 대한민국에 첫 금을 선물한 이윤리(여)는 전북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여자공기소총서서쏴개인전SH1(절단및 기타장애)에서 4위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이윤리는 7일 자신의 주종목인 여자50m 소총 3자세 개인전에서 금빛 총성을 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부터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빛으로 그린 꿈'을 테마로 펼쳐진 대회 개회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고싸움 놀이를 시작으로 식전행사 '작지만 큰 시작', '무등을 깨우다', '다함께 경강한 빛으로' 등 세가지 주제로 펼쳐졌다.

또한 '빛고을 광주'와 '빛' 테마쇼로 진행된 식후행사는 최첨단 영상기법으로 표현해 빛고을 광주가 빛의 터전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용어 설명

▲ T11~T13(육상 트랙)=시각장애 정도를 상·중·하로 구분. 11이 가장 심하고 수치가 높을수록 장애 정도가 덜하다

▲ F11~F13(육상 필드)=시각장애 정도를 상·중·하로 구분(〃)

▲T51~T54(육상 트랙 휠체어 경기)=51이 장애정도가 가장 심하다.

▲ TPB1~TPB3(볼링)=시각장애 정도를 상·중·하로 구분.

"오늘 200m 출전…2관왕 도전"

■ 육상 100m '금' 김하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뛰었는데 지난해 보다 무려 3초를 당기는 기록향상과 함께 메달을 따내 기쁩니다."

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100m T12에서 광주선수단에 첫 금을 안기며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한 김하은(광주세광학교 3년)은 "두 해 연속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코치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김하은은 광주세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인 지난 2006년 육상에 입문한 늦깎이. 평소 활발하고 체육과목을 좋아하던 김하은을 눈여겨본 박전섭 교사의 권유로 달리기를 시작했다. 곧바로 2006 전국장애인 학생체육대회 400m에서 은메달을 따낸 김하은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는 100m 금메달을 따내는 기염을 토했다. 비록 16초대의 기록이었지만 입문 1년 넘은 선수로는 대단한 일을 했다. 그리고 올해는 무려 3초를 당겨 13초대에 진입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 주변을 놀라게 했다.

김하은은 지난 8월말까지 매주 1번씩 무등경기장에서 연습을 했고, 9월부터는 매일 1시간30분씩 땀을 흘린 덕분에 2연패와 기록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김하은은 7일 200m에 출전 대회 2관왕에 도전한다.

김하은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전국체전에 꾸준히 출전, 고향에 금메달을 선물할 꿈을 갖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1팀 코리아 2회 연속 톱 10 도전

내달 그랑프리 2차대회 출전

A1팀 코리아가 '모터스포츠 월드컵' A1 그랑프리(GP) 데뷔 무대에서 사상 첫 10위 내 진입의 여세를 몰아 2회 연속 톱10에 도전한다.

3~5일(한국시간) 네덜란드 잔트포르트에서 개최된 2008-2009시즌 A1 그랑프리 개막 대회에서 종합 8위에 오른 A1팀 코리아는 귀국과 함께 다음 달 7~9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릴 2차 대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A1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가 없는 비시즌에 열리는 국가 대항 모터스포츠.

종합 8위로 포인트 4점과 상금 2만5천달러를 획득한 A1팀 코리아가 구상 중인 프로젝트의 핵심은 메인 드라이버인 황진우(25)의 체력 강화와 머신(경주차) 적응능력 향상. 황진우는 70분 안에 180㎞ 정도를 주행하는 피처 레이스에서 앞서가던 머신들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행운이 겹쳐 7위에 올랐지만 경기 후 급격한 체력 저하를 드러냈다. 특히 무거운 핸들을 조작하는 팔과 헬멧 무게를 견뎌야 하는 목 부위에서 심한 피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A1팀 코리아는 황진우에 대한 정밀 체력 테스트를 거쳐 첫 대회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황진우도 경기 후 "마인트 컨트롤과 체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귀국 후 근지구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1팀 코리아는 또 황진우가 포뮬러 원(F-1) 사상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페라리 2004년형을 기본으로 한 머신에 적응되지 않아 예선과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부진한 성적을 냈던 걸 보완하기 위해 2차 대회에 앞서 주행 테스트를 한 차례 계획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전국체전 D-3…광주·전남 선전 다짐

광주·전남 선수단 어제 결단식

오는 10일~16일 여수시를 비롯한 전남일원에서 열리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광주·전남선수단이 6일 각각 선전을 다짐했다. 광주선수단(위)은 이날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전남선수단은 전남도청에서 결단식을 가졌다. 광주는 종합 13위, 전남은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허정무호 UAE전 최종 엔트리 24명 확정

노장-소장파 조화 속 주전 경쟁은 치열할 듯

허정무호가 관록과 패기의 조화를 통한 위기탈출의 처방전 마련에 나서면서 한층 치열해질 주전 경쟁을 예고했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6일 오전 축구대표팀 24명의 명단 발표를 통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도르트문트), 김동진(제니트), 오범석(사마라) 등 해외파 4인방을 비롯해 부상에서 회복된 곽태휘(전남), 이정수, 조원희(이상 수원) 등 주전급 선수들을 다시 불렀다.

또 K-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스트라이커 정성훈(부산)과 프리킥이 뛰어난 김형범(전북), 공수 조율이 좋은 32살의 백전노장 송정현(전남)을 국가대표로 처음 발탁해 침체에 빠진 대표팀의 득점력에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모든 포지션에 걸쳐 '새로운 피'와 왕년의 주전급 선수들이 투입되면서 주전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허정무 감독이 새롭게 뽑은 정성훈, 김형범, 송정현은 이미 K-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공격자원들이다. 송정현은 1999년 K-리그에 데뷔해 10년 동안 195경기(22골 18도움)를 치렀고 정성훈(129경기 24골 8도움)과 김형범(101경기 20골 12도움)도 이미 100경기 출전을 훌쩍 넘긴 베테랑들이다.

이중 190㎝의 장신 스트라이커 정성훈은 이번 시즌 8골 3도움으로 골 감각에 물이 올라있고, 김형범은 자신의 장기인 '무회전 프리킥'을 앞세워 전북의 최근 5연승에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밀집수비를 뚫기 위한 장신 공격수 활용에 번번이 실패를 맛봤던 허 감독은 최근 K-리그에서 뛰어난 골 감각과 헤딩력을 선보인 정성훈에게 포스트 플레이를 맞기겠다는 복안이다. 또 윙포워드인 김형범도 오른발 프리킥 능력이 뛰어나 부상으로 빠진 김두현(웨스트브로미치)을 대신할 전문 키커로 활용할 작정이다.

곽태휘와 이정수가 부상에서 벗어나고 이영표가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주전 자리 경쟁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 두 자리인 중앙 수비 요원만 해도 곽태휘, 강민수, 이정수, 김진규 등 4명이 힘겨루기를 해야 하고, 왼쪽 윙백 자원은 김동진, 이영표, 김치우(서울) 등 3명이나 된다. 반면 오른쪽 윙백은 오범석뿐이다.

김치우는 그동안 왼쪽 미드필더와 윙 포워드로 기용됐지만 박지성이 가세하면서 다시 수비 자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 수비의 경우 허 감독은 출범 초기 강민수-곽태휘 조합을 가동했지만 곽태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동안 강민수-이정수 조, 강민수-김진규 조를 비롯해 다양한 수비조합 실험을 이어왔다. /연합뉴스